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저성장 전망속에 체감경기 개선세 부진

- S&P는 2011년 일본 경제성장률을 1.3%로 전망하고 금융위기 직전(2007년)의 성장률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.
 - S&P는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2007년 1.9% → 2008년 -1.2% → 2009년 -6.3% → 2010년 3.9%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나 2011년에는 1.3%의 성장에 불과하여 금융위기 전의 성장률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함.
 - 성장지체의 내부적인 요인으로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결여와 2011년도 예산과 관련된 법률안 통과 실패 가능성, 현 일본내각 지지도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불안정한 일본 국내정치 혼란상황이 내수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지적됨.
 - 외부적인 요인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정체 등 예상외의 세계경제 회복지체와 북아프리카·중동의 정세불안이 유가급등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존함.

- 또한 일본 내각부가 조사한 2월 일본의 경기체감지수는 2개월만에 소폭 개선되는 조짐을 시현했으나 여전히 50이하의 불황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.
 - 일본 내각부가 시장전문가(2000명)를 대상으로 현재의 경기와 향후 2~3개월 후의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, 올해 2월 경기판단지수가 전월대비 4.1p 상승한 48.4로 2개월만에 다시 반등한 것으로 조사함.
 - 동 지수가 개선된 것은 2월 비교적 양호한 기상조건으로 여행객수가 증가하고, 그린에너지 가전제품의 세제지원 종료예정으로 내수확대 등 가계동향지수가 개선되었으며, 해외수주량 증가 및 고용 증가 등 기업 및 고용관련 지수가 개선되었기 때문임.
 - 다만, 전문가들이 전망한 향후 경기기대지수는 소비심리 확대전망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및 유가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이익축소 등으로 기업관련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월수치와 변동없이 47.1를 기록함.

(산케이신문 3/8)